

2017년 5월 1일자로 보도부탁 드립니다.

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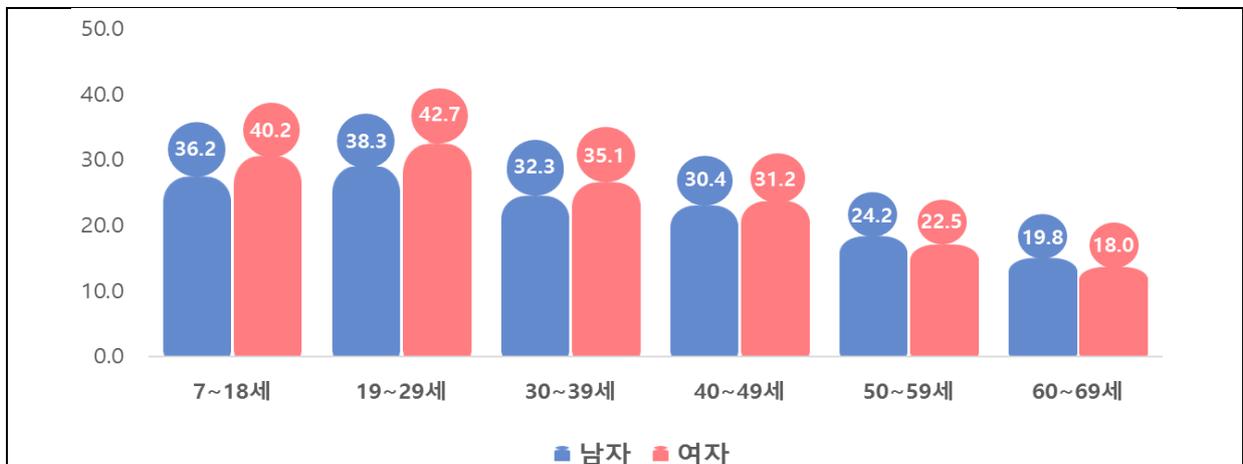
관련 문의: 02-2123-6694 barunict@barunict.kr

## 스마트-폰 중독? 중독이 아니라 이젠 생활이죠!

- 초·중·고생 스마트-폰 사용량 부모세대와 큰 차이 없어
- 게임보다는 음악, 동영상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앱 사용에 집중
- 초·중·고생 스마트-폰 사용에 대한 새로운 시선정립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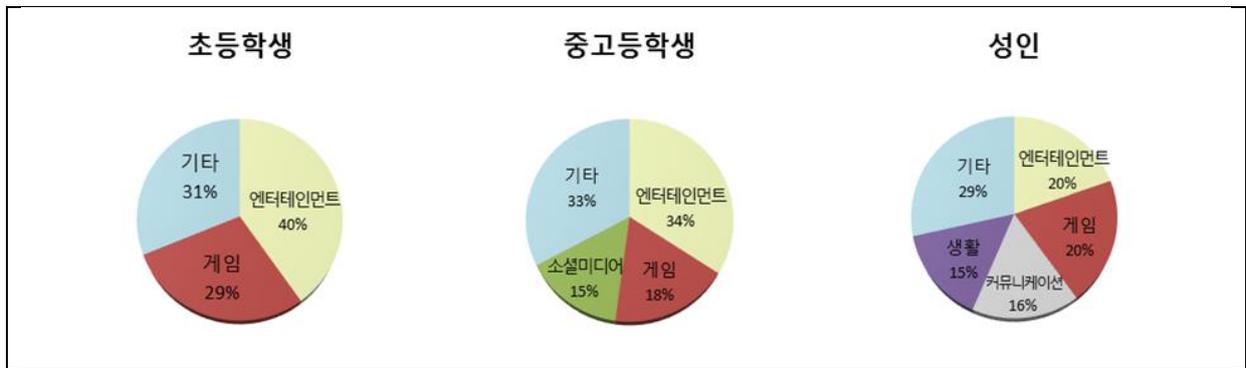
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지난 2016년 6월 27일부터 2016년 10월 2일까지 14주간 전국의 만 7세 이상 70세 미만 6,090명의 스마트-폰 사용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초·중·고등학생 스마트-폰 사용량이 주당 36.2시간(초등학생: 30.4시간, 중고등학생: 38.6시간)으로 하루 평균 5시간 이상을 스마트 폰 사용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수업시간 및 수면시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-폰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. 그러나, 만 18세 이상 성인의 스마트-폰 사용량도 주당 23.5시간으로 초·중·고등학생 스마트 폰 사용량의 약 2/3수준에 달하며, 특히, 부모세대인 30-40대의 경우 30대 평균 31.6시간, 40대 평균 29.3시간으로 자녀 세대와의 사용량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 1] 성/연령별 스마트-폰 주당 평균 사용시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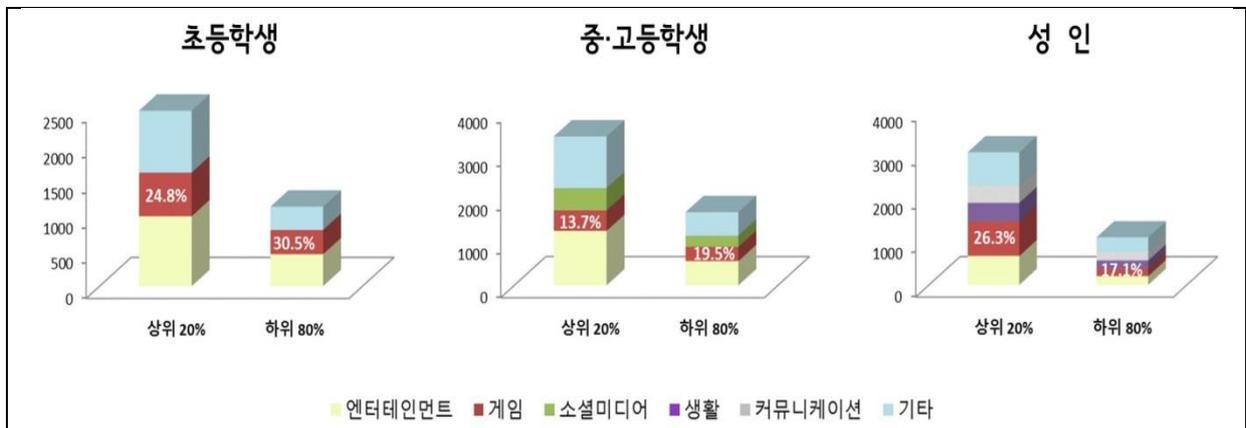
초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카테고리는 음악과 동영상 등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(40.2%) 계열로 게임(28.7%)과 함께 전체 사용시간의 약 68.9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중·고등학생의 경우 엔터테인먼트(34.2%)와 게임(17.9%)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기는 하지만, 게임의 사용시간이 줄고 카페, 블로그, SNS와 같은 소셜 미디어의 사용(15.6%)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분산된 형태의 사용패턴을 보여주고 있다. 성인의 경우 여기에 커뮤니케이션과 생활영역이 추가되면서 영역별 이용시간은 줄고 이용분야는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. 즉, 청소년에 비하여 성인은 보다 다양한 용도로 스마트-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[그림 2] 초등학생/중고등학생/성인의 스마트-폰 사용 카테고리 별 이용비중현황



한편, 과다사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용량 기준 상위 20% 학생들의 경우 하위 80% 학생들의 평균 사용시간의 약 1.5배에 해당하는 주당 63.5시간 (초등학생: 53.8시간, 중학생: 66.2시간)을 스마트-폰 사용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해당 학생들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을 스마트 폰 사용에 할애한다는 것인데, 이 정도 수준이면 해당 학생들의 학습 및 수면 등 일상생활에 장애가 염려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 학생에 대한 사용시간 제한과 같은 적절한 수준의 주의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요구된다.

[그림 3] 상위20% vs. 하위 80% 스마트-폰 사용패턴 비교



그러나, 과다 사용군에 속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평균적인 학생과의 스마트-폰 사용패턴상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. 다시 말해, 과다 사용군에 속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게임에 집중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, 오히려 전체 스마트-폰 사용시간 중 게임에 할애하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(초등학생: 29%→25%, 중·고등학생: 18%→13.7%). 반면, 성인의 경우 사용량기준 상위 20%에 속하는 과다 사용자의 게임비중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(20%→26.3%), 이는 성인이 초·중·고등학생에 비해 스마트-폰 과다사용자의 게임중독위험이 보다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. 한편, 지금까지 정부나 공공기관의 게임중독예방 치유프로그램은 청소년위주로 되어 있었다. 그러나, 위와 같은 결과는 향후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.

초·중·고등학생 및 성인의 사용패턴 차이 분석결과를 보면,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스마트-폰 사용을 부정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권한다. 이는 부모세대의 스마트-폰 과다사용 기준이 자녀세대와 다를뿐더러, 설령 자녀가 과다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화하는 사회에 아이가 생활하는 새로운 방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. 하지만, 과함은 부족함만 못하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 중요한 학업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과다한 스마트-폰의 사용은 부모에 의해 적절히 제한될 필요가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스마트-폰 사용을 제한하기에 앞서 먼저 본인의 스마트-폰 사용량을 체크해 보는 지혜를 발휘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.

모바일 홈페이지



#### <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>

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는 올바른 ICT문화 구축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설립됐다. 스마트 감성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슈를 연구하여 'IT로 보다 행복하고 연결된 삶을 실현'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 연구진 및 기업/공공기관 전문가들과 연계하는 열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.

문의: 바른ICT연구소 정보가치 연구팀 임지선 연구원